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삼성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근로자 석방교섭 마무리 정부 “재발방지 나설 것”

美 한국인 구금 사태

李 대통령, 조속한 해결 지시
송환 위한 전세기 출발 예정
조현 외교부 장관 주중 방미

정부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미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된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7일 오후(한국시간), 현지에서 구금된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은 마무리됐으며, 이들을 송환하기 위한 전세기가 곧 출발할 예정이다.

앞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버너 일원에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단속을 벌여, 비자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475명을 체포했다. 이 중 한국인은 30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말 간 벌어진 급작스러운 한국인 구금 소식에 정부는 대응에 총력을 다했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삼성동 총리공관

에서 진행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께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對美)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당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하셨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정부부처,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구금돼 있는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고, 행정절차만 남아 있다”며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국민의 구금 상황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바로 해결책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사안이 조속히 해결돼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당정대가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교부는 해당 사건이 발생하자 한미당국 간 조율을 하고 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번주 내로 방미할 것이며, 정해지는 대로 일정을 공지한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재계 “워킹비자 등 韓美 정책지원 필요”

》 1면 ‘美에 뒤통수 맞은...’서 계속

미국 당국이 우리 기업의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한 건 이전에도 있었다. 2020년 9월 SK이노베이션 조지아주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13명이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하고 일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현대차·LG엔솔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단속처럼 대규모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이번 미국 정부의 대규모 단속으로 향후 국내 기업들의 부담은 확대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 현대차그룹은 3만대 규모의 로봇 공장과 270만톤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 건설도 진행 중이다.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 구축을 앞두고 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현재 인디애나주 공장 착공 전 단계라 당장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기술인력 투입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 기자 ysw@

美,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 방침 재확인

삼성 등 관세 제외 가능성... 업계, 예의주시

트럼프, 반도체 밸류체인 내재화 공언
“최종 발표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지 않는 반도체 기업들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다. 불과 한 달 전 외국산 반도체에 100%의 관세를 예고한 데 이어 ‘반도체 밸류체인 내재화’를 거듭 공언한 것이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지위를 철회한 조치까지 겹치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투자 확대 부담과 중국 사업 리스크라는 이중 과제를 안게 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IT업계 CEO들과의 만남에서 “반도체와 관련해 미국에 들어오지 않는 회사들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꽤 상당한 관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미국에 공장 건설 계획을 갖고 들어오면 관세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확한 관세 부과 발표 시기와 관세율은 언급하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생산시설을 짓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대미 투자를 약속한 삼성전자는 관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최종 발표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어 업계는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정책 기조가 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 확대를 촉진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도 따른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중국 사업과 관련 리스크가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9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더는 VEU 자격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면제됐던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의 반입절차가 내년부터는 건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로 인해 중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가 정치 외교 핵심카드로 굳어지고 있으며 미국 내 생산 중심으로 산업 지형이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우리 기업으로서 는 미국 내 투자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이 아니기에 정책 방향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WE ARE THE NEXT
KOREA UNIVERSITY

고려대학교 개교 120주년

지축을 박차고 포효하거라

2026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서울캠퍼스 | 2025. 9. 8. (월) ~ 9. 10. (수)
세종캠퍼스 | 2025. 9. 8. (월) ~ 9. 12. (금)
접수처 oku.korea.ac.kr